BARUN

정답과 해설

원서 해부 노트 정답

Part 3 실전 변형 모의고사 · Part 4 파이널

PART 3

실전 변형 모의고사 정답과 해설

객관식 16문항(90점) + 서답형 1문항(10점)

배점: 4·6·9·11·12·13번 각 6.0점, 나머지 10문항 각 5.4점(합 90점) / 서답형 10점(부분 점수 없음)

번호	정답	해설
1	②	어차피 고생할 거라면 덕을 향해 고생하라(166쪽 ¶5~¶7). ①은 고난이 삶의 일부라는 말과 어긋나고, ⑤는 헛된 목적의 예를 '고난 = 잘못된 목표'로 비튼 오답.
2	②	여성도 남성만큼 교육받아야 한다는 도발적 주장(165쪽 ¶7 ~ 166쪽 ¶2). ⑤는 배경(당시의 통념)일 뿐, ③ 21편은 남은 강의 전체의 수.
3	③	아직 가진 것을 보고 선을 행할 기회를 찾음 → 역경도 택하면 우리를 낫게 한다(168쪽 ¶2~¶5). ①은 정반대.
4	①	말의 매력에 휩쓸린 환호 = 귀만 즐거운 공연(165쪽 ¶4~¶5). ②는 '피리'의 표면 뜻.
5	①	돈을 싫어한 그에게 돈은 가짜에게나 맞는 대가라는 조롱(169쪽 ¶4). ②는 반대.
6	④	①·②·③·⑤는 Musonius, ④는 자신을 변호할 준비가 없었던 Socrates(167쪽 ¶8).
7	②	서기 60년 플라우투스와 시리아로(167쪽 ¶2). ① 반대파와의 인연 ③ 용기를 내 죽음을 기다리라 ④ 잠시 귀환 ⑤ 세네카가 죽은 뒤(65 AD)에 추방.
8	③	도미티아누스는 그 가르침을 들을 수 있었지만 잔인함 · 폭력 · 의심을 택했다(171쪽 ¶3).
9	⑤	선행사 The hardships 뒤에는 관계대명사 that(which). ① 앞선 과거 ② speak highly of ③ 수동 ④ be to V(과거에서 본 미래).
10	⑤	(A) we가 스스로를 치료하는 능동 healing (B) 생략된 주어 he가 견디는 능동 enduring (C) 자동사 returned.
11	④	뒤의 in fact, the soldiers jeered와 이어지려면 ignored(169쪽 ¶8 unheeded).
12	①	빈칸 뒤 unless dying would help even more people과 짝(167쪽 ¶5). ② 삶의 길이는 기준이 아니고, ③은 그가 고난을 견딘 문맥과 반대.
13	②	These were lessons는 ② 앞의 세 가르침을 받고, ② 뒤 Surely, then의 근거가 된다.
14	③	명성과 겸손한 출신을 다루는 흐름에 훗날 유배지 기아로스의 오늘(167쪽 ¶7)이 끼어든다.
15	②	(B) 잘 죽는 사람이 복되다 → (A) To die that way · 자기 차례 → (C) that turn.
16	①	황제의 밀고자를 공격하는 일은 위험했고(risky, 170쪽 ¶4), 수고는 지나가도 선(good)은 남는다(170쪽 ¶2). ②·⑤ safe는 모순, ③ pleasure는 지나가는 쪽.
서답형	EQUALITY	(1) E the Roman Socrates (2) Q Gyara (3) U an underground spring (4) A Galba (5) L True (6) I Epictetus (7) T Publius Egnatius Celer (8) Y three → E-Q-U-A-L-I-T-Y(평등). 함정: C. Rome's Iron Man(카토), K. a canal, H. Epaphroditus, D. Demetrius the Cynic(변호인), N. four.

PART 4

파이널 — 손으로 복원한다

평가 2~3일 전. 눈으로 읽은 것은 시험장에서 반쯤 사라지고, 손으로 쓴 것만 남는다.

4-1. 핵심 문장 12선 — 우리말을 보고 영어로 쓰기

Part 2의 어법 포인트를 그대로 쓰는 문장들이다. 괄호 안의 단서를 활용해 쓴 뒤, 정답과 해설로 대조하고 틀린 자리에 표시한다.

01 그는 트라세아가 네로 아래에서 겪은 시련이 즐거워 보일 만큼 험한 삶을 견뎠다. (so ~ as to V / make + O + 원형)
→ **He endured a life so challenging as to make Thrasea's ordeal under Nero seem fun.**

02 그는 그런 것들이 특별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도 않은 듯하다. (Nor + 도치 / 삽입절 it seems)
→ **Nor, it seems, did he think these things were particularly important.**

03 그들은 철학자의 말이 아니라 피리 연주자의 공연을 듣고 있는 것이다. (not A but B / hear + O + -ing)
→ **They are not hearing a philosopher speaking but a flute player performing.**

04 덕을 향한 타고난 성향을 지닌 것은 남성만이 아니라 여성도 그렇다. (It is ~ who 강조구문 / not A alone but B also)
→ **It is not men alone who possess a natural inclination towards virtue, but women also.**

05 무소니우스 가르침의 핵심에는 고된 노동이 중요하다는 믿음이 있었다. (장소 부사구 문두 도치)
→ **At the core of Musonius's teachings was a belief in the importance of hard work.**

06 서기 60년 플라우투스를 따라 시리아로 망명길에 오른 사람은 바로 무소니우스였다. (It was ~ who 강조구문 / accompany(타동사))
→ **It was Musonius who accompanied Plautus into exile to Syria in 60 AD. (who would accompany ~도 정답)**

07 살아서 많은 이에게 쓸모 있는 사람은 죽기를 택할 권리가 없다. (of + 추상명사 = 형용사 / One who ~ + 단수 동사)
→ **One who by living is of use to many has no right to choose to die. (has not the right ~도 정답)**

08 유배가 아무리 나빠도, 네가 그렇게 택한다면 그것은 너를 더 낫게 만들 수 있다. (As + 형용사 + as + S + V(양보))
→ **As bad as exile is, it can make you better, if you so choose. (Bad as exile is, ~도 정답)**

09 지혜로운 사람을 그가 타고난 삶에서 밀어낼수록 그는 그쪽으로 더 기운다. (the 비교급, the 비교급)
→ **The more one pushes the intelligent person away from the life he was born for, the more he inclines towards it.**

10 그의 태도는 누가 권력을 쥐든 무관심한 것이었다. (보어 to부정사 / be indifferent to + 명사절)
→ **His entire approach was to be indifferent to who was in power.**

11 무소니우스는 켈레르를 단죄하는 일에 대가가 따르리라는 것을 알았음에 틀림없다. (must have p.p.)
→ **Musonius must have known that justice against Celer would come at a cost.**

12 네 가지 덕으로 나아지지 않을 만큼 높거나 낮은 자리는 없다. (no + 명사 + so ~ that ... not)
→ **There is no position so high or so low that it is not improved by the four virtues.**

4-2. 숫자 · 고유명사 복원표 — 보지 않고 채우기

서답형과 내용 일치 문항이 걸린 표다. 한 칸이라도 비면 Part 1-4로 돌아간다.

항목	답
무소니우스의 출생 · 출신 · 사망(표지)	20~30 AD / 에트루리아의 볼시니이 / 약 101 AD
태어난 계급 / 태어난 시대 / 동시대인이 부른 이름	기사 계급 / 티베리우스 치세 / "로마의 소크라테스"
그를 높이 언급한 그리스도인 두 사람 · 황제 / 그와 달리 로마 사회의 꼭대기를 즐긴 두 사람	순교자 유스티누스 ·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스 ·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 세네카 · 키케로
성공한 철학자의 표시 / 박수받는 철학자의 비유	침묵 / 피리 연주자의 공연
가장 도발적인 믿음 / 남은 강의 수 · 관련 강의 수 / '아름다운 결합'의 부부	여성도 남성만큼 교육받아야 한다 / 21편 · 2편 / 브루투스와 포르키아
같은 바탕의 사람 / 그가 공부를 이어 간 방법	클레안테스 / 육체노동
첫 시련의 원인 / 함께 망명한 사람 · 해 · 장소	스토아 반대파와의 인연 / 플라우투스 · 60 AD · 시리아
플라우투스에게 한 조언	"용기를 내 죽음을 기다리라"
기아로스 추방의 해 · 계기 / 고향과의 거리	65 AD · 피소 음모(세네카의 죽음) / 약 700마일
섬에서 찾은 것(한 기록) / 허구 편지의 주인	땅속 샘 / 티아나의 아폴로니오스
운하 일화의 인물 / 믿기 어려운 까닭	견유학파 데메트리오스 / 공사 시기가 기아로스 유배 기간과 겹침
유배로 철학자가 된 사람 / 그가 머물지 않은 곳	견유학파 디오게네스(스토아 디오게네스 아님) / 시노페
로마에서 일부러 찾은 것 다섯	추위 · 더위 · 갈증 · 배고픔 · 딱딱한 침대
귀환을 허락받은 때 · 황제 / 사기꾼에게 준 돈	68 AD · 갈바 / 1,000세스테르티우스
사절로 함께 간 사람 / 기록한 역사가	아룰레누스 루스티쿠스 / 타키투스
기소한 동료 스토아 / 그 변호인 / 그가 처형에 가담한 스토아	푸블리우스 에그나티우스 켈레르(70 AD 무렵) / 견유학파 데메트리오스 / 바레아 소라누스
베스파시아누스의 유배 기간 / 세 번째 유배지	3년(처음엔 면제) / 시리아
유배에서 부른 사람 · 해 / 도미티아누스가 죽인 사람들	티투스 · 78 AD / 아룰레누스 루스티쿠스(93 AD 사형 선고) · 헬비디우스 프리스쿠스의 아들 · 에파프로디투스
네 가지 덕 / 끝까지 빼앗기지 않은 것 / 산 나이	정의 · 절제 · 지혜 · 용기 / 유배를 견디는 능력 / 70대나 80대

4-3. 통합 사고 문제 — 20장과 23장을 잇는 자리

문제

20장에서 타키투스는 플라우투스에게 용기를 내 죽음을 기다리라고 조언한 무소니우스가 그의 망명길에 동행했다고 시사하고(151쪽 ¶4), 플라우투스가 군대를 일으키지 않은 데에는 무소니우스의 또 다른 조언이 작용했을지도 모른다(152쪽 첫 줄). 23장의 무소니우스는 기아로스 섬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지 않고 살아 공부했으며(167쪽 ¶4~¶6), 그의 단편과 마지막 모습은 삶의 길이에 대한 그의 생각을 보여 준다(171쪽 ¶7 ~ 172쪽 ¶1). 두 장에 공통으로 드러나는 무소니우스의 기준을 아래 문장의 빈칸에 들어갈, 두 장의 원문에 모두 나오는 영어 한 단어로 쓰고, 플라우투스에게 한 조언과 기아로스에서 그 자신이 한 선택이 어떻게 같은 기준에서 나왔는지를 영어 두 문장으로 설명하시오. (각 문장에 20장 또는 23장의 어휘를 하나 이상 포함할 것)

무소니우스의 기준: What matters is not how long one lives, but whether one lives and dies _____.

기준: well (20장 152쪽 첫 줄 "Choose to die well while it is possible" · 23장 172쪽 첫 줄 "he is blessed who dies not late but well")

근거 1 (예시): Musonius counseled Plautus in exile to have courage and await death, and his advice to choose to die well while it was still possible may be what convinced Plautus to refuse a bloody civil war.

근거 2 (예시): On Gyara, however, Musonius did not kill himself, because he believed that one who by living is of use to many has no right to choose to die, so for him dying well never meant simply dying early, just as living well never meant simply living long.

채점: 단어(well) + 두 장의 일화를 각각 근거로 들 것(플라우투스에게 한 조언 / 기아로스에서의 선택) + 20 · 23장 어휘(await death, die well, civil war, exile, of use to many, longevity, the greater good 등) 포함. 20장의 조언이 추측(Tacitus suggests · Perhaps)으로 전해진다는 점을 살려 쓰거나, 172쪽 ¶1의 "advised them in some cases to go when it was their time and others to hold on because they still had work to do"를 들어 두 선택이 한 기준에서 나왔음을 밝히면 가산.